

舊韓末 平壤의 大成學校

李 光 麟

I. 序 言

II. 大成學校의 設立

III. 大成學校의 教育

IV. 大成學校의 閉鎖

V. 結 語

I. 序 言

舊韓末 平壤 薛岩里에 設立되었던 大成學校는 一個 中等教育機關에 지
나지 않았으나 한국 近代教育史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그 까닭은 우선 학생의 質과 아울러 敎育內容이나 設備가 훌륭하여 당
시 다른 敎育機關의 모범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白巖
(또는 謙谷) 朴殷植(1859~1926)이 『西北學會月報』에 寄稿한 「祝賀大成學
校」란 글에서,

(上略)然이나 現今 我韓에 敎育程度가 尙屬萌芽時代라. 西道各處에 學校로 言하
면 殆히 千數에 達하엿슬지나 大抵 皆幼穉한 程度로 規模의 精美와 科目의 完備
와 基礎의 鞏固한 者를 概乎難見인즉 敎育의 幼穉한 것을 可知호 學校의 敎育이
幼穉한즉 社會의 進化가 幼穉한 것을 亦可知矣니 必也 惟一精美한 學校가 標置於
其中하야 完全한 敎育을 施하고 完全한 模範을 示하하여야 一般學界에 良好한 結
果가 有할줄노 思量하고 希望하얏더니 乃者 尹致昊・李鍾浩・安昌浩 三氏가 有見
乎此하야 三道 中央에 就하야 大成學校를 建立하야 遠近學生으로 하야곰 指南을
資하야 循序를 得게 하니 其規模의 精美와 科目의 完備함이 實노 各校의 模範을
作할지니 吾濟가 此를 爲하야 祝賀함이오 社會의 福音이 됨을 爲하야 祝賀함이니

……(下略)¹⁾

라 하여, 그 實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重要的 것으로서는 당시 國民들로부터 卓越한 指導者로 推仰을 받고 있던 思想家 島山 安昌浩(1878~1938)가 이 學校를 設立하여 다른 學校보다 더 民族精神을 昂揚하고 人格陶冶를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1932년 金滢植이란 이가 「平壤大成學校와 安昌浩」라는 글을 雜誌 『三千里』에 寄稿하면서,

(上略) 그 先導者 中에도 島山 安昌浩氏와 같은이는 實로 不滅의 感動을 西鮮民衆에게 준 偉大한 人格者로 그의 渾身은 「民族을 愛한다」, 「血과 誠의 結晶이었다」. ……(中略) 이 血과 誠의 人 安昌浩氏는 坊坊曲曲에 簇生한 私立學校의 卒業生을 收容하는 同時에 自己의 理想과 計劃을 實行할 民衆의 指導者——有志人士를 養成키 爲야 西鮮의 中心地 平壤 薛岩里에 于先 中等教育機關을 設立하고 그 일흔을 大成學校라 하였다. 大成學校는 實로 島山 安昌浩氏의 誠과 血의 結晶이었으며, 當時 民衆思想의 縮圖이었다. ……(下略)²⁾

고 하여, 安昌浩와 大成學校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金滢植은 大成學校 卒業生으로 위의 글을 쓸 때는 朝鮮日報의 記者였다. 어쨌든 大成學校는 舊韓末 한국社會에서 갓벌처럼 빛나는 教育機關으로 國民들로부터 熱熱한 支持와 憧憬의 對象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重要的 學校에 대해 우리들은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를테면 設置의 動機와 教育內容, 그리고 그 閉鎖의 原因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大成學校에 대한 지식은 몇 가지 回顧錄으로 滿足하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回顧錄이란 前記 金滢植의 글, 春園 李光洙(1892~?) 著述의 『島山 安昌浩』³⁾ 속에 들어 있는 內容, 그리고

1) 1卷 6號(1908년 11월 1일 刊) 教育部.

2) 22號(1932년 1월 刊) 所收.

3) 大成文化社, 1973, pp. 37~44.

田榮澤의 「大成學校의 精神」⁴⁾ 등이다. 回顧錄에는 重要的 內容도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어서 틀린 것도 있다. 結局 大成學校에 대해서는 오늘날 關係文獻을 널리 수집하여 천착한, 이른바 研究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⁵⁾

今般 筆者는 이 學校와 관련되는 몇 가지 問題를 살펴 보기로 하였다. 如前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關係文獻을 수집하여 整理해 보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 近代教育史 뿐만 아니라 開化史의 一面을 밝히는 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Ⅱ. 大成學校의 設立

1900 년을 前後하여 10 여년간 韓國社會에는 愛國啓蒙운동이 廣範圍하게 展開되었다. 言論의 暢達, 新式學校의 설립, 國學의 研究 등이 크게 일어났던 것은 그 좋은 證據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新式學校의 설립은 關西地方이 가장 앞장 섰었고, 또 熱誠을 보였던 것이니, 黃玪(1855~1910)의 『梅泉野錄』 중에,

(上略) 是時學校・社會 滿國中 學校則 關西尤盛 龍川一郡 至二十餘區……(下略)⁶⁾

라 있고, 또 『大韓每日申報』의 「南人學問遜於西北」이란 記事 중에,

(上略) 第今韓之局勢를 槩論컨의 舊態日祛하고 新氣漸來함이 即人文變遷하는 一大

4) 주요한 編著, 『改訂版 安島山全書』(三中堂, 1971) pp. 78~93 에 들어 있는 內容.

5) 吳天錫의 『韓國新教育史』(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pp. 204~211 에 들어 있는 內容도 主로 위의 回顧錄을 土臺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愼鍾廈의 『韓國民族運動史研究』(乙酉文化社, 1985) 第1章에서도 많은 史料를 수집, 利用하고 있으나, 新民會에 焦點을 두고 있다.

6)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光武 10년 9월 條.

機會인즉 國內人士에 他日榮辱得失이 惟其學問上 勉勵與否에 在인바 今夫三南等地居民은 田土沃腴하며 物産이 豐饒하야 一切養生之見에 無所艱苦키로 舉皆志氣怠惰은더러 幾百年來 大家巨族이 多居其地하야 富貴赫然하며 驕奢淫逸之風習이 自然濡染함으로 目下苟安과 舊日陋習만 是戀是安하야 國權之回復을 空然坐而望之하코 新學問上에 奮發用力이 別無其人이되 至若西北人民하야는 其風性質이 從來堅忍勤悍하야 可與有爲키로 或外國에 遊學하야 勤苦를 不憚하며 或學校를 廣設하야 教育에 熱心함이 蔚然 衆民之先覺이오 全國之巨擘이라 將來人材之成就와 文明之開進을 有不可量호지니……(下略)⁷⁾

라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學會를 설립함에 있어서도 關西地方사람들은 앞장을 섰었다. 즉, 1906년(光武 10) 10월 10일 朴殷植(1859~1926) 등이 中心이 되어 서울에 西友學會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어 그 해 11월에 李東輝(?~1928) 등 咸鏡道出身 人士들이 漢北興學會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8년(隆熙 2년) 1월에는 위의 두 學會가 統合되어 西北學會로 發展하였다. 西北學會 開會式에 참석하였던 雲養 金允植(1835~1922)이 그의 日記에 쓰기를,

往參校洞西北學會開會式 初西人在京者 設西友學會 北人在京者 設漢北學會 至是合爲西北學會 會長鄭雲復 總裁李道宰 總務金達河 西北人士雲集 次第演說 規模整肅 辭氣清亮 最後安昌浩演說 妮妮數千言 激昂感慨 一座洒然動聽 此人遊學美國五年 年方三十云 見方西北雲開 風氣日進 不似三南之冗冗昏睡 其可嘉歎⁸⁾

이라 있듯이, 安昌浩 등의 演說을 듣고 西北地方의 風氣가 三南地方과는 달리 날로 크게 進歩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부러워 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安昌浩는 미국에 건너가 약 5년간 일을 하다가 1907년(光武 11년) 2월에 귀국하여 梁起鐸(1871~1938), 申采浩(1880~1936), 全德基, 李東寧(1869~1940), 李甲, 李東輝, 李昇薰(1864~1930), 安泰國(1875~

7) 光武 10년 1월 19일 字 雜報.

8) 『懷陰晴史』 下卷(國史編纂委員會, 1960) 隆熙 2년 1월 10일 條.

1920) 등 言論人·宗教人·軍人·實業家 등과 함께 「新民會」라는 秘密團體를 조직하였다. 그 目標하는 바는 民族意識의 覺醒과 獨立思想의 鼓吹에 있었다.⁹⁾ 곧 몇 가지의 事業體를 설립 推進하였고, 그것은 모두 公開의으로 推進하였다. 事業體란 教育을 위한 大成學校, 젊은이들의 人格修業을 위한 靑年學友會, 書籍 出版·販賣를 위한 太極書館, 産業振興을 위한 平壤 馬山洞의 磁器會社 등이었다.

위의 事業體는 어느 것이나 重要치 않는 것이 없었으나 그 중 新民會에서 特別히 힘을 기울였던 것은 大成學校였던 것 같다. 그것은 당시 한국 國民들에게 가장 必要로 하였던 문제가 教育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學校에는 財政과 教育專門家가 必要하였다. 財政이 있어야만 學校建物을 세우고 諸般 施設을 갖출 수 있었고, 教育專門家가 있어야만 教育內容을 充實히 할 수 있었다. 이 무렵 各處에 雨後竹筍처럼 學校가 세워졌으나 學校다운 것은 別로 없었다. 그러므로 日本에 留學 중에 있던 松南 金源極이란 이가,

學校의 設立이 多數함이 爲實하다하나 教育의 階級과 順序를 組成치 못하면 雖多하나 何益이 有하리오. 今日 我國教育界의 新潮가 日漸膨脹하야 京鄕各處에 此輩 彼塾이 在在相望하나 各學校의 主務諸氏가 教育하는 方向을 不究하고 但히 學校의 名稱을 冒取함으로 所謂 小學校의 教科를 見하야도 尋常高等의 區別을 難尋이며 所謂 普通學校 中學校라 稱호 者도 名實이 不符하야 邯鄲學步와 殆同하니 此는 國民의 一般知識이 幼稚한 程度에 難免한 事實이라. 然호則 步武를 高舉하고 勇奮齊進하야 實地를 是圖함이 可할지로다.(下略)¹⁰⁾

라고 지적하였음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安昌浩는 財政을 위해 李鍾浩(1885~1932)에게, 教育內容을 위해 尹致昊(1865~1946)에게 손을 뻗었다. 李鍾浩는 前 內藏院卿 李容翊

9) 李光洙, 前掲書, p. 36.

10) 『太極學報』 25號(1908년 10월 刊)에 掲載된 「平壤의 中學校消息」.

(1854~1906)의 孫子로 1905년 韓·日間 保護條約이 체결된 뒤 祖父가 러시아 땅으로 亡命하자 巨額의 遺産을 물려 받았고,¹¹⁾ 또 祖父의 遺産을 계승하여 普成學校와 普成社라는 印刷所를 운영하고 있었다.¹²⁾ 그는 남달리 敎育事業에 關心을 가져 이미 西北學會 會館 建築에도 1萬元을 喜謝한 바 있었다.¹³⁾ 安昌浩의 요청이 있자 즉각 받아들여, 10萬元이란 巨金을 내놓았다.¹⁴⁾ 이 金額은 學校建物을 짓는데 充分하였다.

한편 尹致昊로 말하면, 당시 한국社會에서 누구보다 더 外國의 敎育實情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881년 紳士遊覽團에 隨行하여 日本에 계속 남아 俞吉濬(1856~1914) 등과 함께 한국 最初의 外國 유학생이 되었다. 그때는 2년 간 中村正直이란 敎育者가 경영하던 「同人社」에서 修學하였다. 甲申政變 뒤에는 中國 上海로 건너가 南監理敎會에서 경영하던 「中西學院」에서 1888년 6월까지 3年半, 이어 渡美하여 南部의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과 「에모리」(Emory) 대학에서 5년간 修學한 뒤 上海로 건너가 中西學院에서 敎鞭을 잡았다. 1895년에 한국에 돌아와 學部協辦, 德源監理, 外部大臣署理를 歷任하였으며, 獨立協會 活動이 絶頂에 達하였던 1898년(武光 2)에는 그協會의 會長이 되었다. 그리고 韓日間 保護條約 체결 뒤인 1906년에는 張志淵(1864~1921) 등과 함께 大韓自強會를 조직하여 會長이 되어, 國力培養과 敎育事業에 힘을 썼다. 이 해에 韓英書院을 開城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尹致昊는 일찍부터 한국의 敎育改革에 關心이 있었다. 上海의 中西學院에서 敎鞭을 잡고 있을 때 한국政府로부터 빨리 돌아와 일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中西學院에 辭表를 提出한 뒤 同僚인 「리차드」(Richard)를 訪問하여 앞으로의 自己의 計劃을 밝혔다. 여기서 그는

11) 『梅泉野錄』 隆熙 2년 9월 條.

12) 『新東亞』 2卷 5號(東亞日報社, 1932년 5월 刊) 「維新敎育의 恩人—故人이 된 韓末篤志 月松 李鍾浩」 참조.

13)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5일 字 論說 「此是自家事」; 『續陰晴史』 下卷, 隆熙 2년 5월 7일 條.

14) 『梅泉野錄』 隆熙 2년 9월 條.

첫째로, 한국에서의 事業과 關聯하여 나는 一般國民의 啓蒙을 위해 有益한 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의 時間을 소비하고 싶고, 둘째로 政府의 자리를 얻게 되면, 나는 學部를 맡고 싶다. 이 경우에 當分間 日本에 건너가 日本의 教育制度를 조사하고 그것을 한국에 紹介하고 싶다.

고 말하자, 「리차드」도 좋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¹⁵⁾ 그 一端을 살필 수 있다. 물론 그 뒤 學部協辦이 되었으나 改革의 權限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룩한 것이 별로 없었다. 安昌浩로부터 훌륭한 中學校를 세워보고 싶으니 도와 달라는 要請을 받자 기꺼히 同意하였다.

諸般 施設을 갖춘 훌륭한 中學校를 설치해 보려고 安昌浩가 東奔西走하고 있다는 소식은 당시 一般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皇城新聞』에서는 1908년 7월 29일 字 論說에서 「平壤의 中學校」라는 제목으로,

年來 我韓에 文明空氣를 漸次 輸入함이 教育程度가 進步되야 全國內에 學校가 日增月加하는 中에 西道가 居多한데 平壤에는 小學校와 普通校와 女學校와 師範講習所와 法律專門校와 耶蘇教會와 大學校 [等] 次第 興起하였으나 尙今 中學校의 設置가 未有함으로 一大缺點이 되는바러니 近日 安昌浩氏가 教育界에 完全精美한 模範을 建立키 爲하야 苦心專力으로 謀及有志하야 中學校를 特設하기로 現在 經紀中이라 하니 吾儕도 此에 對하야 爲之期望하며 爲之贊成하거니와 而況關西人士의 義俠風氣와 開明思想으로 孰不同情於此하고 協力於此이며 而況安君의 眞摯한 性格과 純潔한 理想과 高尚한 品行과 卓犖한 識見이 一般社會의 素所信愛慕用者乎아. 以是推之하거니 雖此生活困難之中이라도 該地人士의 義務心으로 其能完全 成立하거니는 可以確信할지로다. ……(下略)

라 하여, 安昌浩의 事業이 成功되기를 確信한다고 피력하였던 것이다.

實은 모든 것이 如意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 무렵, 즉 1908년 9월 1일 日帝의 統監府에서는 「私立學校令」이라는 것을 公布하여 한국의 수 많은 私立學校에 대해 酷毒한 彈壓을 加하기 시작하였으나 安昌浩는 아랑곳

15) 『尹致昊日記』 卷 3 (國史編纂委員會, 1974) 1894년 12월 27일 條.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學生募集의 廣告를 新聞에 게재하였다.¹⁶⁾

本人等이 願學靑年을 教育하기 爲하야 中學校를 設立하고 預備科와 初等級 學員을 募集하오니 願學會員은 今月二十四日內로 請願書를 提出하시옵.

但 請願紙는 本校에 來請함.

試驗日字

九月 貳拾四日(木曜)

貳拾五日(金曜)

時間 自午前八時

至午後四時

開學日字

九月貳拾六日(土曜)

平壤大成中學校 主務人

李鍾浩

安昌浩

尹致昊

그러니까 預備科와 初等科의 學生을 모집한다는 것, 志願書는 9월 24일까지 提出하라는 것, 試驗日字는 24·25 兩日에, 開學은 26일에 한다는 것이었다. 初等科는 中學課程이었다. 그리고 預備科란 初等科에 들어가는 학생을 위해 特別히 설치한 것이었다. 이 廣告에는 試驗科目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 뒤에 나온 新聞의 廣告를 보면 讀書(國漢文), 作文(國漢文), 算術(四則)로 되어 있었다.¹⁷⁾

이어 贊成勸告書, 즉 大成學校設立趣旨書를 各界에 돌렸다. 이것은 大成學校설치의 動機를 설명하는 글이라 할 수 있었다. 그 一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¹⁸⁾

嗚呼라 今日 我韓國民이 果然 如何한 時代에 處하얏나뇨. 列強이 競爭하느데 我

16)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15일 字.

17) 同上 9월 16일 字.

18) 同上 9월 19일 字 雜報「教育界의 大鍾警」.

는 蔑弱하며 各族이 猛進하노라 我는 離伏하며 群虎가 咆哮하노라 我는 頑寐하야 文明의 花가 六洲에 燦爛하진만은 我는 黑暗界에 陷入하얏으며 自由의 鍾이 萬國에 轟傳하진만은 我는 劣魔獄에 墮在하얏으며 英男佛女는 華嚴樓閣에 生活하진만은 我檀君子孫은 三間草屋도 頽破하얏으며 歐種美產은 黃金世界에 競走하진만은 我朝鮮族은 壹片田土도 荒沒하얏스니 嗚呼라 今日 我韓國民이 果然 如何한 時代에 處하얏노노.....(中略) 今日 我韓國民이 汲汲計圖호者 知識啓發 四字가 아닌가. 然이나 知識啓發의 機關이 何에 在하노하면 此는 萬國同唱曰 教育이라 할지라.....(中略) 嗚呼라 今日 我韓國民이여 教育을 捨하면 生活方法이 竟無하니라. 惟茲西道는 風氣가 稍開하야 教育이 急切됨을 皆知하나 壹個完全호 知識을 受호 中學校가 無하니 엇지 可惜호비 아니리오. 今幸 尹致昊・李鍾浩・安昌浩等 이 此를 慨惜하야 西道中心地되는 平壤郡內에 大成學校를 設立하야 遠近青年의 中學教育에 從事하니 壹般人士의 莫不共賀共祝者라. 然이나 如此重大事業을 該氏에게만 專賴하고 恬然傍觀하면 好結果에 達하기 難하겠기로 同胞諸公에게 贊成호를 仰告하노니 嗚乎 諸公이여 此에 贊成호이 平壤學校에만 贊成호이 아니오 西道教育에 贊成호이며 西道教育에 贊成호이 아니오 大韓前途에 贊成호이니 嗚乎同胞諸公이여.

要컨대, 오늘날과 같은 生存競爭時代에는 國民의 知識啓發이 重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教育이 切實히 必要하다는 것, 이에 尹致昊, 李鍾浩, 安昌浩 諸氏가 大成學校라는 中等教育機關을 設치한다는 것, 학교 운영에는 一般國民의 支持가 없으면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 었다.

豫定대로 학생募集이 끝나, 1908년 9월 26일 開校式을 거행하게 되었다. 新入生은 90餘名이었고, 開校式에는 來賓이 1,000餘名이나 參席하여 大盛況을 이뤘다. 校長에는 尹致昊가 推戴되고 安昌浩는 代辦校長이 되었다. 代辦校長이란 正式校長이 不在中에 代身 말아보는 校長이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安昌浩가 무슨 일이든 表面에 안나서고 事業을 추진하는 方針에서 나온 것이었다.¹⁹⁾ 尹致昊는 開城의 韓英書院 운영도 맡고 있어서

19) 同上 9월 30일 字 雜報「大成開校盛況」; 金滄植, 回顧錄; 李光洙, 前揭書, p. 38.

별로 平壤에 있지 못하였다.²⁰⁾ 따라서 安昌浩가 실제로 校長職을 맡고 있었다.

『大韓每日申報』에서는 1908년 10월 2일 字論說에 「平壤의 大成學校」라는 제목으로 “美哉라. 平壤의 大成學校여. 盛哉라. 平壤에 大成學校가 今日에야 始立호얏도다. 壯哉라. 平壤에 大成學校가 無키不可호도다”라고 쓰면서 前途를 祝賀하였다.

또 朴殷植은 『西北學會月報』에 「祝賀大成學校」라는 제목으로 “主務諸氏여, 勉哉어라. 贊成諸公이여, 勗哉어라. 受業諸君이여, 大成二字의 名義를 常常顧念호야 大成事業의 目的을 期期到達호지어라”고 激勵하였다.²¹⁾

그리고 日本 留學生들의 雜誌인 『太極學報』에서도 松南 金源極이란 이가 論壇에서 「平壤의 中學校消息」이란 제목으로 “大成中學校의 實地名譽가 成立호는 日이면 全國의 中學生徒가 率皆 平壤에 遊學호리니 我國文明의 樞機가 此學校에 信호줄노 確認호노라”고 쓰면서, 이 學校의 앞날에 큰 希望을 전다고 하였다.²²⁾

大成學校에 대한 關西地方사람들의 後援은 대단하였다. 開校를 한 지 1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平北 鐵山사람 吳熙源이 5,000圓, 宣川사람 吳致殷이 2,000圓, 平壤사람 金鎭厚가 3,000圓을 運營補助費로 各已 寄附하는 快舉가 있었다.²³⁾ 吳熙源은 鐵山에 彰東學校를 設立하고, 定州의 五山學校, 서울의 協成學校, 그리고 日本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의 團體인 太極學會에도 寄附金을 낸 바 있었다.²⁴⁾ 吳致殷은 五山學校의 設立者

20) 『皇城新聞』 1910년 4월 14일 字 雜報 「英韓書院과 工業」을 보면, 尹致昊는 渡美하여 開城의 韓英書院 擴張을 위해 募金운동을 展開하고 있다.

21) 1卷 6號(1908년 11월 1일 刊) 敎育部.

22) 25號(1908년 10월 刊) 所收

23) 『皇城新聞』 1908년 10월 29일 字 論說 「偉哉三氏의 高義」;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29일 字 論說 「關西江山의 三志士가 新出現」; 『太極學報』 6號(1908년 11월 1일 刊) 雜錄; 『梅泉野錄』 隆熙 2년 10월 條.

24) 『新東亞』 5卷 11號(1935년 11월 刊) 所收, 白虛의 「私學界 恩人 故吳熙源翁

李昇薰의 장사 밀친을 도와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大韓學會에도 贊助金을 낸 바 있었다.²⁵⁾ 이들이 提供한 寄附金은 大成學校 運營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開校는 되었으나 校舍도 完工되지 못했고, 教師의 招聘 또한 제대로 되지 못했다. 學校當局에서는 이 事實을 率直히 밝히고 明年이면 計劃대로 된다고 新聞에 알렸으나,²⁶⁾ 이는 早速히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教師로서는 金鎭初가 제일 먼저 招聘되었다. 그는 平南 肅川人으로서 당시 26세, 1902년(光武 6) 6월에 渡日하여 正則豫備學校에 入學, 1905년(光武 9) 中學科를 修了하고 同 9월에 東京帝國大學 農科에 入學하여 1908년(隆熙 2) 7월에 卒業하고 귀국하였다.²⁷⁾ 그러니까 滿 6년간 日本에 유학하였던 셈이었다. 귀국 即時 故郷에 돌아가 葛山洞이란 마을에 農會를 조직하여 일을 하다가 大成學校의 開校와 同時에 拔擢되어 教師로 就任하였다.²⁸⁾ 그의 專攻은 農學이었으므로 學校當局에서는 그의 學識과 能力을 發揮시키고자 農林講習所를 學校에 附設하여 教授케 하였다. 그講習所는 50名の 學生을 뽑아 10월 15일, 그러니까 大成學校가 開校된 지 20일 뒤에 門을 열었다.²⁹⁾ 아래와 같은 新聞記事에 보이듯이,

平壤私立大成學校에서 農林講習所를 附設하고 學員을 募集하는데 壹個年 速成

을 追憶함); 『太極學報』 9號(1907년 4월 24일 刊) 寄書;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2日 寄書.

25) 李光洙, 前掲書, p. 42; 『大韓學會月報』 4號(1908년 5월 25일 刊) 彙報.

26) 『皇城新聞』 1908년 9월 15일 字 廣告.

27) 『西北學會月報』 1卷 6號(1908년 11월 1일 刊) 所收 隆熙 2년 夏期卒業生 一同 寫眞과 그 附錄; 金源極, 「送農學士 金鎭初氏之本國」, 『太極學報』 22號(1908년 10월 24일 刊) 所收.

28) 『西北學會月報』 1卷 5號(1908년 10월 1일 刊)에 실린 論說 「肅川郡葛山洞 農會設立에 對하여 百拜祝賀함」; 『太極學報』 25號(1908년 10월 24일 刊) 會員消息;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30일 字 雜報 「大成開校盛況」.

29) 『皇城新聞』 1908년 10월 8일 字 雜報 「農林開學期」;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8일 字.

으로 敎授한다더라.³⁰⁾

고 하여, 그것은 1個年 速成科였다. 아마 入學資格은 별로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開放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 知識人들 사이에서는 農業振興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해, 즉 1909년 8월 서울의 西北學會에서도 農林講習所를 열어 金鎭初를 비롯하여 日本에서 農學을 專攻하고 돌아온 金志侃, 元勛常을 招聘, 2學期, 7個月의 速成科를 開設하였다.³¹⁾

1909년 8월 張膺震이 大成學校 敎師로 招聘 되었다. 그는 黃海道 長淵人으로 당시 30세, 東京高等師範學校 卒業生이었다.³²⁾ 舊韓末 한국에서 日本에 유학한 학생은 700명에 達하였으나 高等師範學校를 卒業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³³⁾ 더우기 張膺震은 誠實한데다가 抱容力을 갖고 있어서 日本유학생들이 ‘太極學會’라는 團體를 조직하였을 때 그 會長으로 選出되기도 하였다.³⁴⁾ 學會에서는 『太極學報』라는 雜誌를 刊行하였는데, 여기에다가 그는 「我國普通教育論」, 「敎授와 敎科에 對하야」, 「我國國民教育의 振興策」, 「科學論」, 「社會我를 論함」 등의 많은 論文을 發表하였다.

1907년 2월 初 安昌浩가 美國에서 韓國으로 돌아 오는 途中 잠시 日本에 들린 바 있고, 또 그 해 5월 中旬 다시 日本을 訪問하였을 때 太極學會에서는 大대의인 歡迎會를 開催하였는데³⁵⁾ 會長 張膺震이 앞장서서 그 일을 도맡다시피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安昌浩와 가까이 사귈 수 있었

30) 同上書, 1908년 10월 10일 字 雜報「大成校講農」.

31) 『皇城新聞』 1909년 8월 18일 字 論說「農林講習所에 對하야 勸告我全國同胞」;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일 字 論說「賀西北學會內農林講習所發起」.

32) 『大韓興學報』 5號(1909년 7월 20일 刊)「卒業生一覽」; 『皇城新聞』 1909년 4월 3일 字 論說「兩學生의 文明師範」.

33) 『皇城新聞』 1909년 7월 17일 字 論說「權迎張膺震君」.

34) 『太極學報』 2號(1906년 9월 24일 刊)「太極學會創立紀念會」.

35) 同上書 7號(1907년 2월 24일 刊) 安昌浩氏 歡迎及金錫桓氏送別會와 10號(1907년 5월 24일 刊)「兩氏歡迎會」.

다. 한편 安昌浩측에서도 張膺震의 사람됨과 그 學問을 살필 수 있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굳은 約束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安昌浩가 學校를 세우게 되면 張膺震은 高等師範學校를 卒業함과 同時에 그 學校의 教師로 赴任한다는 約束을 하였던 것 같다. 前述하였듯이 明年이면 教師문제가 해결된다고 開校할 당시 新聞에 公告한 바 있는데 이는 張膺震의 赴任을 믿고 그렇게 썼던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卒業과 同時에 赴任하였고 뒤에 이 學校의 校長이 되었다.³⁶⁾

그가 赴任한 다음 해 여름, 즉 1910년 7월 8일에서 8월 13일까지 1개월이상 大成學校에서는 夏期講習所를 열었다. 이를 師範講習所라고도 불렀는데, 一種의 教師 再教育機關이라 할 수 있었다. 敎務行政에 關한 實務를 主로 가르치는데 目的을 두고 있었다. 勿論 張膺震의 專攻分野이기 때문에 그가 擔當하였다.³⁷⁾

앞에서 紹介한 教師 金鎭初도 본시 太極學會 創立 때부터 評議員으로 활약한 사람이었다.³⁸⁾ 太極學會에서 安昌浩를 위한 歡迎會를 開催하였을 때 그도 참석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도 東京에서 安昌浩와 사귀게 되고 귀국하자 教師로 招聘되었을 것이다.

金斗化(正確히는 和)라는 이가 역시 開校初부터 教師로 招聘되어 있었다. 그의 經歷은 알 수 없으나,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18일 字 雜報 「大成學校 經論」을 보면,

平壤 私立大成學校에서 學校管理及敎授方針을 實地 視察하기 爲하야 該校敎師 金斗化氏를 日本에 派遣하였다더라.

고 있듯이, 學校의 管理和 敎授方針을 視察하기 위해 日本에 派遣하였다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그는 合併 이후 日帝가 捏造한 105人事件에 連

36) 金澄植, 回顧錄.

37) 『大韓每日申報』 1910년 6월 2일 字 學界報 「大成學校 夏期師範講習所」와 同上 書 7월 7일 字 雜報 「夏期講習」.

38) 『太極學報』 1號(1906년 8월 24일 刊) 「本會會員名錄」.

累되어 獄苦를 치렀는데, 公判時 學術視察次 日本 東京에 갔었다고 陳述하고 있다.³⁹⁾

역시 105人事件에 連累되어 獄苦를 치렀던 玉成彬도 大成學校의 英語敎師였다.⁴⁰⁾ 安泰國도 大成學校와 關聯을 맺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安泰國이 上海에서 別世하였을 때의 新聞記事, 즉 『獨立新聞』 1920년 4월 13일 字「安泰國先生의 長逝」라는 記事를 보면,

(上略) 先生이 34歲에 新民會의 西道總監으로 被任하고 그 後 青年學友會를 發起하여 國民性的 根本的 改善에 努力하다. 大成學校에서도 先生이 重要的 任務를 맡으시고 京城과 平壤에 太極書館경영하여 先生이 親히 主人이 되다.

고 하여, 大成學校에서 重要的 任務를 맡고 있었다고 있다. 이는 敎師나 학교運營에 參與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⁴¹⁾

한편 金澄植의 回顧錄을 보면, 敎師로 張膺震, 金鎮初, 金斗和 外에, 車利錫, 羅一鳳, 張基永, 文一平, 黃義敦, 崔穀恒, 柳祈熱, 金絃軾, 劉鎮永 李相在外 十餘人, 그리고 體操敎師로서 鄭仁穆, 李昇高이 在職하였다고 한다. 특히 鄭仁穆은 軍人將校出身이었다. 그리고 李祥來라는 사람도 敎師로 있었다 한다.⁴²⁾

위에 列舉한 사람 중, 車利錫(1881~1945), 柳鎮永(亨?), 文一平(1888~1939), 黃義敦(1887~1964), 羅一鳳은 分明히 大成學校의 敎師로 있었다. 車利錫과 柳鎮永은 1911년 105人事件에 連累되었고, 특히 車利錫은

39) 『每日申報』 1912년 7월 11일 字「重大事件公判」.

40) 同上, 7월 10일 字「重大事件公判」.

41) 「1911년 安岳·新民會事件 判決文」(尹炳奭, 『韓國近代史料論』, 一潮閣, 1979所收)을 보면 安泰國은 大成學校長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每日申報』 1912년 7월 9일 字「重大事件公判」에는 大成學校 相談役, 同 11일 字「重大事件公判」에는 贊成員으로 나온다. 贊成員이란 後援會會員을 가리키는 것이나 아닌지?

42) 『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東國大學校 史學會, 1960) 所收「黃義敦先生略歷」.

7년刑을 받고 3년간 服役하였는데, 大成學校에는 그 以前에 敎師로 있었다.⁴³⁾ 文一平은 1908년 日本 明治學院 中學部를 卒業과 同時に 귀국하여 大成學校 敎師로 있었으며,⁴⁴⁾ 黃義敦은 合邦이후인 1911년에 大成學校 敎師로 赴任하여, 大成學校가 廢校될 때까지 歷史를 가르쳤다.⁴⁵⁾

羅一鳳에 대해서는 『皇城新聞』에,

平壤郡 私立 進明女學校에서 第三回 卒業式을 去十二日 大成學校 內에 權設하였는데, ……(中略) 大成學校 敎師 羅一鳳氏가 微旨를 朗讀한 後, ……(中略) 大成學校 校監 張膺震, 本郡守 朴容觀氏 等の 勵勉이 有하였고, ……(下略)⁴⁶⁾

라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처음에는 몰라도 뒤에는 학생數도 많아지고 여러 班으로 나뉘져 있었으므로 敎師의 數도 많았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大成學校는 1908년 9월 24, 25일 預備科와 初等科의 入學試驗을 보고 26일에 開校하였다. 그러나 選拔한 學生의 質이 매우 낮아 大部分의 學生을 預備科에 入學시켜야 했다.⁴⁷⁾ 그러므로 開校한지 20여일 뒤 다시 學生을 募集하여 初等科 學生을 채웠다.⁴⁸⁾

1학기가 지난 뒤 또 다시 學生募集을 公告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1월 24일 入學試驗을 보고, 다음 날, 즉 25일에 開學하였다. 이번의 試驗科目에는 讀書, 作文, 算術, 歷史, 地誌, 物理, 生理, 植物, 英語, 日語까지 들어 있었다.⁴⁹⁾ 初等科, 즉 中學科의 學生은 以上の 科目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디까지나 中學

43) 「毎日申報」1913년 5월 7일 字「車利錫의 感想談」; 『百五人事件資料集』第2卷(不二出版社, 東京, 1986년 1월) p. 280.

44) 『湖岩全集』3卷(一成堂書店, 1948) 所收 文一平의 「나의 半生」.

45) 前掲, 「黃義敦先生略歷」.

46) 1910년 7월 17일 字 雜報「進校卒業生과 演說」.

47) 金澄植, 回顧錄.

48) 『大韓毎日申報』1908년 10월 11일 字 廣告.

49) 同上書, 1908년 12월 31일 字 廣告.

課程의 水準을 높이기 위한 措置였다고 할 수 있다.

有能한 教師가 招聘되어 있고, 敎育도 철저히 實施하고 있다는 소문은 쉬이 퍼졌다. 이 때문에 大成學校에 대한 一般國民의 認識은 날로 높아갔고, 學生은 關西地方에서 뿐만 아니라 畿湖, 嶺南地方에서까지 몰려 왔다.⁵⁰⁾

Ⅲ. 大成學校의 敎育

大成學校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는 이 學校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매우 重要的한 문제이다. 公的으로 가르친 科目은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6일자 廣告欄에 나와 있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廣告欄을 보면, 預備科와 初等科 1, 2, 3학년 敎科目이 提示되어 있다. 이것은 開校한지 20일이 지난 뒤 學生을 再募集할 때에 提示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大成學校에서는 이러 이러한 科目을 가르치니 關心있는 학생은 應募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預備科
修身 中等修身
國語 大韓文典
漢文 漢文讀本
作文 論, 書緘
歷史 東國史略
地理及天文 大韓地理
數學 自四則 至分數
博物 新編博物學
理化學 初等理化學
法制 經濟
農學 農學入門
商業 商業大要
工業

一學年
修身 倫理學敎科書(上)
國語 大韓辭典
漢文 御定五經百選
作文 策, 記, 書緘
歷史 東西洋歷史(上)
地理 萬國新地志
數學 自比例 至求積
博物 植物學
理化學 中等物理學
法制 國家學
農學 林業學
商業 商業大要
工業

50) 『皇城新聞』 1910년 5월 17일 字 論說「平壤愛」.

外語 英・淸・日語

圖畫 自在畫

音樂 單音唱歌

體操 普通, 兵式

外語 英・淸・日語

圖畫 自在畫

音樂 上全 樂器用法

體操 普通, 兵式

二學年

修身 倫理學教科書(下)

國語

漢文 中學文法

作文 銘, 箴, 序, 跋, 書臧

歷史 東西洋歷史(下)

地理 地文學

數學 代數, 幾何, 簿記

博物 動物學

理化學 物理, 化學

法制 法學通論

農學 水產學

商業

工業

外語 英・淸・日語

圖畫 自在畫

音樂 複音唱歌, 樂器用法

體操 普通, 兵式

三學年

修身 心理學

國語

漢文 高等文法

作文 疑, 表, 疏, 傳, 公文式

歷史

地理 天文學

數學 幾何, 三角, 測量

博物 礦物學

理化學 化學

法制 經濟學

農學 農政學

商業

工業

外語 日・英・淸語

圖畫 用器畫

音樂 複音唱歌, 樂器用法

體操 普通, 兵式

以上の科目 중에는 오늘 날의 中等課程의 것과는 훨씬 水準이 높은 것들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1 학년에 國家學(오늘날의 政治學을 가리킨다.), 林業學이 들어 있고, 2 학년에 法學通論, 水產學, 3 학년에 天文學, 測量, 鑛物學, 經濟學, 農政學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作文을 보면, 預備科에서 論, 書臧, 1 학년에 策, 記, 書臧, 2 학년에 銘, 箴, 序, 跋, 書臧, 3 학년에 疑, 表, 疏, 傳, 公文式이 들어 있다. 이와같은 것은 傳統的 敎育機關인 書院에서의 敎授科目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金滢植의 回顧錄 중에,

그 當時 學校의 課程은 中等學校라 하지만 只今의 中等學校보다 훨씬 高等이어서 四學年 課程은 었던 專門學校의 三學年 程度와 對等하였스며, 또 數學은 越等하게 高等하였고 學校의 設備도 中等學校로서는 類例가 업스리만큼 完備하였었다.(下略)

고 있는 것은 당시의 實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筆者가 보기에는 數學을 비롯한 自然科學科目은 오늘날 것보다 그렇게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없다.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不可避하였을 것이다. 그 代身 國家의 獨立과 民權문제 등에 관심이 컸었다. 따라서 社會科學에 관한 科目은 매우 水準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作文 같은 科目은 오늘날의 中學生, 아니 大學生으로서도 想像할 수 없을 정도로 水準이 높은 것들이었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20세, 30세의 靑年들이 많았다고 하니,⁵¹⁾ 이들을 相對로 하여 가르치려면 것처럼 水準이 높은 것이라야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書堂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바 있어 相當한 水準의 漢學을 이미 習得하고 있었다. 初等科 1學年 金景鎮이란 學生이 「自主獨立」이란 제목으로 쓴 作文을 보아도 그 水準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獨立者 不藉他人之扶助 而屹然自立於世界者也 人而不能獨立時 曰奴隸 於民法上不認爲公民 國而不能獨立時 曰附庸於公法上 不認爲公國 嗟乎 獨立之不可以已如是也 易曰 君子以獨立不惧 孟子若豪人 雖無文王 猶興 又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人苟不居君子 而自居細人 不自命豪傑 而自命凡民 不自爲丈夫 而甘爲妾婦 則亦已 苟不然 則當自養獨立之性⁵²⁾

預備科의 國語는 大韓文典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崔光玉 著 李商在 校閱의 『大韓文典』을 教材로 썼을 것이다. 1908년 10월 6일 字『大

51) 金澄植, 回顧錄.

52) 이 글은 『限本繁吉文書』(渡部 學·阿部 洋 所藏) 속에 들어 있다. 限本는 1908년 3월 大韓帝國 學部 書記官에 任命된 이후 한국의 各種 學校를 調査한 바 있다. 한편, 前記 『百五人事件資料集』 第2卷, pp. 270~283에도 大成學校 2年級 學生들의 作文이 실려 있다.

韓每日申報』에 初等科 학생 再募集 廣告와 함께 『大韓文典』을 發賣한다는 廣告를 실으면서,⁵³⁾

本文典은 普通教材의 國語科程으로 需用키 爲하야 編輯한 者로 今에 再刊發售
함.

發行元 安岳邑 勉學書會

發兌元 京城 中央書館

平壤 太極書館

이라고 있다. 이를 보면, 學校教材로 쓰기 위해 『大韓文典』을 再刊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預備科의 漢文은 漢文讀本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中國人 梁啓超가 著述한 『飮水室文集』을 教材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⁵³⁾ 安昌浩는 『飮水室文集』을 높이 評價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逸話는 그 端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즉, 三南地方의 어떤 有志가 大成學校로 安昌浩를 찾아와 나라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묻자, 安昌浩는 “크게 용패는 일만이 나라일이 아니오, 梁啓超가 만든 『飮水室文集』을 몇 卷 사서 三南에 있는 有名한 學者에게 주어 그것을 읽게 하시오. 그것이 나라일이요”라고 타일렀다는 것이었다.⁵⁴⁾

學科目 중에서 體育을 몹시나 重要視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體操, 野球, 蹴球 등의 運動도 勸獎하였지만,⁵⁵⁾ 學生募集 廣告에 明示되어 있듯이 預備科, 그리고 初等科 1, 2, 3 학년 全學生에게 兵式을 가르쳤다. 兵式이란 軍事訓練을 말한다. 兵式을 매우 철저히 가르쳤던 모양으로 누구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金澄植의 回顧錄만 보아도,

53) 洪箕疇, 「安島山の 校長時代——一學生의 메모란담」, 『東光』 5卷 1號(通卷 40號, 1933년 1월 刊).

54) 주요한 編著, 『改訂版 安島山全書』, p. 87.

55) 洪箕疇, 回顧錄.

(上略) 體操時間을 第一 尊重하되 當時 體操敎師로는 原來 軍隊의 士官으로 矢志는 鐵血의 人 鄭仁穆氏(只今은 故人)이었는데 全혀 軍隊式을 敎練하였다. 積雪沍寒에도 曠野에서 體操를 식히며 쇠를 녹이는 暴陽下에서 戰術講話를 하였고, 이 차금 夜間에 非常召集會를 나리어 險山溪谷에서 膽力을 길으게 하며 月下의 永江에서 “壯하도다. 우리 學徒 兵式行步가……”의 노래를 부르며 肅肅한 行進을 하여 活氣를 길러 주었다. 그리하여 學生들의 氣風은 活潑하고 規律은 嚴肅하야 一般 常營의 的이 되었었다……(下略)

고 있음을 參考할 수 있다.

그리고 春秋로 開催하였던 大運動會는 學生들의 熱意도 컸지만, 一般國民의 關心 또한 대단하여 大盛況을 이뤘 恒常 新聞에도 紹介되었다. 이를 보면,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14일 字에 「大成校運動狀況」이란 제목 아래,

前報와 如히 去十一日 平壤大成學校에서 春期大運動會를 舉行하였는데 競技種目은 四十餘件을 試하였고, 臨時運動時報社를 設어야 五, 六號의 紙數를 發行하였는데, 崔南善·文一平諸氏가 該報의 筆을 主하였고 軍樂隊를 設어야 各般音曲을 奏하였으며 來賓은 朴殷植, 盧伯麟·金鎭初等 諸氏와 觀光同胞는 大略四, 五千에 達하였더라.

고 쓰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文一平은 이 學校敎師였으며, 崔南善은 日本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와 서울에 있었는데 잠시 이 學校를 訪問하고 있는 중이었다. 崔南善은 新民會의 傍系조직인 「青年學友會」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서, 大成學校에 대해 關心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尹致昊·張膺震·崔光玉·朴重華 등과 함께 青年學友會의 發起人 중의 한 사람이었다.⁵⁶⁾

한편 大成學校에서는 課外活動을 勸獎하고, 그것을 自治의으로 운영케 하였으니, 다시 金澄植의 回顧錄에,

56)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7일 字 雜報 「青年學友會趣旨書」 참조.

또 學生間에는 同門會란 것을 組織하여 全히 自治를 하게 하였는데, 同文(門의 잘못?) 會안에는 講論部·音樂部·運動部·檢察部·社交部 등이 있었고, 各部에는 設備가 完全하여 京城 平壤의 蹴球競爭은 이 것이 처음이었으며, 西洋人과 野球試合도 平壤의 矯(矯의 잘못)矢이었다. 또 學校안에 軍樂隊 設備은 이새가 처음으로 그 器具도 完備하였으므로, 講論部 會日에는 多다 悲憤慷慨한 辯說들을 吐하였고 檢察部는 體操教師의 所屬으로 氣風取締를 嚴酷히 하였는 것이다.

고 하여, 講論部(雄辯部), 音樂部, 運動部, 檢察部(紀律部), 社交部 등이 各己 活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름 放學式 때 實施하는 演劇 등도 불만한 것이어서,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30일 字 雜報「大成放學」이란 제목下에,

平壤大成學校 夏期放學式을 二十三日에 箕子陵下 愍忠壇에서 設行하였는데 觀察使 李軫鎬氏의 勸勉的 演說과 該校生徒 玉觀彬氏의 李忠武公歷史譚과 全德基·李東暉·崔炳憲 三氏의 勸勉的 演說과 各地 風俗에 關한 演劇을 次第 舉行하여 一大 盛況을 呈하였는데 觀光男女가 三千餘名에 達하였더라.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大成學校 教育에 있어서 가장 有別하고, 또 學生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끼쳤던 것은 安昌浩의 指導였다. 그는 몸소 實踐하면서 가르쳤던 것이므로 그 效果는 컸다. 入學試驗 때부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口述試驗을 實施하여 학생의 身上을 파악하는⁵⁷⁾ 한편 학생들이 入學하면 訓育을 직접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精神教育을 重要視하였던 셈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眞實을 崇尚토록 하였으며,⁵⁸⁾ 恒心을 가지고 遵法을 해야 된다고 力說하였다.⁵⁹⁾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精誠을 다하고 소홀히 하지 말도록 要求하였다. 便所를 清潔히 쓰도록 타일렀

57) 洪箕疇, 回顧錄.

58) 田榮澤, 回顧錄.

59) 李光洙, 前揭書, pp. 39~40.

고,⁶⁰⁾ 登校時에도 빈들거리며 놀지 못하게 하였다. 다시 回顧錄을 보면,

쓸데없는 架空捉風하는 空論忘談보다 一土石과 半行步라도 務實力行主義에 置重하였다. 이 主義를 一般 學生에게부터 實現시키기 爲하야 每朝 上學時에 반드시 돌 한개式을 가져오기를 決定하였다. 都會地인 故로 돌 한 개도 如干 큰 問題가 아니다. 不可不 夜間에 城外로 가서 몇 개式 預備하였다가 每朝에 持去하게 되었다. 四百名의 學生이 돌 한 개式 가져오는 光景은 果然 壯觀이었다. 不過 몇 週日에 積堆된 石塔은 적은 牧丹峰이 세 個나 形成하게 되어서 其後 大講堂 建築할 때에 그 周圍의 긴 垣牆은 全部 그 돌로써 築造하게 되어 後日에도 그 垣牆은 그 積功의 虛되지 않는다는 것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다.⁶¹⁾

고 하여, 뒷 날 安昌浩가 興士團을 창립하면서 내세웠던 「務實力行」을 이때에 이미 學生들로 하여금 實踐케 하였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安昌浩의 感化를 받은 大成學校의 學生과 教師 누구나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李光洙가 『島山安昌浩』 p. 38에서,

도산(安昌浩)이 대성학교에 온갖 심력을 경주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다만 생도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을 동지의 의로 굳게 결속하였다. 그의 인격의 감화력이 어떻게 위대한 것은 잠시라도 대성학교의 생도이던 사람은 평소에 도산을 양모하게 된 것과 어떤 사람이든지 대성학교의 교원으로 들어오면 수주일 내에 도산화한 사실로 보아서 추측할 일이다. 대성학교의 생도는 창립 일주년이 되기도 전에 평양 시민의 경애를 받게 되고, 휴가에 각 각 향리에 돌아가면 그 생도들은 대선생의 훈도를 받은 선비의 품격이 있다 하여 부로(父老)와 동배에게 놀람과 존경을 받았다.

고 있음을 參考할 수 있다.

60) 洪箕疇, 回顧錄.

61) 同上.

Ⅳ. 大成學校의 閉鎖

1909 년은 大成學校가 세워진지 2 년째를 맞이하는 해였다. 建築 중에 있던 教室도 完工되고 內部設備 또한 갖춰지게 되었다. 그 해 7 월 『皇城新聞』의 記者였던 朴殷植이 關西地方을 旅行하던 중 大成學校를 訪問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去月二十五日 本記者가 上午八點에 京義列車을 搭乘하고 下午五時에 平壤에 抵き니……(中略) 翌日에 大成學校를 訪問키니 時值休學야 多數學生은 不得接見이나 諸般設備에 莊嚴과 若個青年의 健全한 氣象이 實로 國內學校에 全一指를 屈호지르다……(下略)⁶²⁾

고 하여, 大成學校의 모습이 당당하여 우리나라 學校 중에서 첫번 째로 손꼽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1 월에 統監府의 伊藤博文(1841~1909) 統監은 한국의 純宗皇帝로 하여금 地方을 巡幸토록 强要하였다. 1 년 半 前 高宗皇帝를 讓位케 함으로써 빚어진 國內外的 騷亂을 무마해 보려는 등에 目的을 두고 있었다.⁶³⁾ 第1 次로 1 월 7 일에서 12 일까지 大邱·釜山·馬山 等地를, 第2 次로 1 월 28 일에서 2 월 3 일까지 平壤, 新義州, 義州, 黃州, 開城 等地를 巡幸케 하였다. 統監府에서는 皇帝가 訪問하는 都市의 家家戶戶에, 그리고 歡迎群衆에게 太極旗와 함께 日章旗를 집에 걸거나 들고 나오도록 命을 내렸다. 그러나 群衆들은 그 命을 無視하고 門에 걸지도 않았고, 들고 나오지도 않았다. 심지어 日章旗를 찢어버린 경우도 있었다.⁶⁴⁾ 특히, 大成學校 學生들의 反撥은 몹시 커서 쉽게 눈에 띄었다. 即時 日帝는 校長 安昌浩를 連行하여 詰責하였다. 그러나 安昌浩는 論理整然하게 抗辯하

62) 『皇城新聞』 1909 년 8 월 11 일 字 雜報「西道旅行記事」.

63) 『大韓每日申報』 1909 년 1 월 12 일 字 雜報「韓皇陛下의 地方 巡狩키시는 理由」.

64) 『韓國獨立運動史』 1 卷(國史編纂委員會, 1965) p. 384.

였는데, 이 때 警察과 安昌浩와의 問答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今番 御巡幸 祇迎時에 平壤 大成學校 生徒들이 日旗를 交叉치 아니함은 前已報
道어니와 此로 因하야 當地 警察署에서 校長 安昌浩氏를 招致質問하기를 日旗를
交叉하라고 官吏의 訓令이 有하더 不從함은 逆民이 非乎아 安氏가 答曰 學大訓令
에는 此等說이 無하고 郡守訓令에는 此說이 有하니 官令이 不壹한 同時에는 自意
를 從함이 可하 故로 如此라함대 又問하기를 然則排日主義가 非呼아 安氏曰 事理
의 穩當하더로 行함이 豈爲排日이리오하더 數回 質問이 有하後에 從此로 範圍外의
行動을 行치말나하거늘 安氏가 乃慨然曰 今番 御巡幸에 伊藤統監은 陪從臣이니 皇
上陛下 外에는 何許陪從臣의게던지 爲하야 國旗를 揭함은 非理의 事라 陪從臣의
게 對하야 其國旗를 揭하면 皇上을 爲하는 我臣民의 哀情이 었지 未安不快하거
아니리오 하얏다더라.⁶⁵⁾

要컨대, 當局의 命令 自體도 統一되어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一個 陪臣
에 지나지 않는 伊藤統監을 위해 日章旗를 내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뒤 大成學校 廢止說이 나돌았다. 日章旗를 내걸지
않은 것은 統監府에 反抗한 것이니까 그대로 傍觀할 수 없다는 뜻을 統監
府 官吏가 流布시켰던 것 같다. 『大韓每日申報』에서는 이를 重視하고 「大
成學校廢止說」이란 論說로서 그 不當함을 主張하였으니, 그 主要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西道 教育 中心點으로 設立된 大成學校를 今番 大駕 西巡에 日章旗 並하거지 아
니한 緣由로써 一邊人이 方且該校 廢止하거기를 研究 計劃中이라는 說이 藉藉하
더라.

此說이 一傳言에 一般 志士가 其胸을 撫하고 十數行의 眼淚를 下하여曰 從此로
西道中心·教育이 已矣라 하며 國民의 精神教育이 已矣라 하고 或者는 悲憤落望
의 極에 反해 該校人士를 責하여曰 小不忍이면 大謀를 亂하나니 當初 該校의 發
起한 目的이 民智를 發達코저 함이며 國魂을 培養코저 함이요 決코 此等事件에
一番官令을 反對하고 中止할 意思로 設立한 者 아니리니……(中略) 即今 大成學
校 廢止問題가 何에서 起하었나뇨 하면 日旗並又를 反對함으로 起함이라 하니 日

65)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5일 字 雜報「安氏正論」.

旗並叉는 何故로 反對를 나타노. 壓尊不敬의 嫌을 避함이니라. 彼伊藤氏 官位가 雖高하나 日本의 統監이며 韓國皇帝의 陪從臣이라. 陪從臣을 爲하야 日旗를 交叉하면 壓尊의 嫌이 有하야 施行치 아니함이니 萬一 此嫌을 知하면서 一時 官令에 陷호여 此를 服從하면 是는 自國主權의 尊嚴을 輕視함이며 自國民族의 義性을 剝奪함이니……(中略) 嗚呼라. 官吏의 威令이 能히 學徒를 解散호지언당 學徒의 志는 奪치 못호지며 學校는 廢止호지언당 學校의 魂은 移호지 못호지니 今에 但只 四千載 先祖先王의 威靈을 伏호고 儼然히 天地間에 獨立하다가 義理가 威力에 暫屈호여 巍巍 新校가 一朝에 仆호지라도 此를 談笑로 觀호며 樂觀으로 觀호라 如此하면 是又 形式上 大成學校는 廢止하야도 精神上 大成學校는 鞏固함이며 一個 大成學校는 廢止되야도 百千個 大成學校를 產出함이니 該學校 廢止의 說을 又奚驚이리오. ……(下略)⁶⁶⁾

그러니까, 日章旗를 내걸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廢校措置를 한다는 것은 常識 밖의 일ियो, 萬若 廢校를 한다해도 學校의 魂마저 除去할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百・千個의 精神上的 大成學校가 등장할 것이라고 警告하였다. 廢止說은 大成學校가 創立된지 半年도 채 못된 時期에 일어났었으니 統監府 當局이 大成學校에 대해 얼마나 惡意에 찬 눈으로 보고 있었던가를 如實히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실은 日帝가 언짢게 생각할 만큼 大成學校는 韓國社會에서 돋보이는 存在로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해, 즉 1909년(隆熙 3) 10월 26일 前 統監 伊藤博文이 「하얼빈」(哈爾濱)驛에서 安重根(1879~1910) 義士의 依해 暗殺된 事件이 일어났다. 即刻 統監府에서는 이 事件의 背後를 조사한다는 口實下에 安昌浩, 李鍾浩, 李甲 등 西北地方 有力人士를 檢舉하였다. 모두 서울로 壓送하여 龍山에 있는 日本 憲兵隊에 4개월 간 拘束하였다가 1910년 2월 22일 석방하였다.⁶⁷⁾ 그러나 安昌浩에 대한 日帝의 監視는 날로 甚해져 계속 머물러 있기가 힘들었다. 드디어 그 해 4월 7일 京畿道 幸州에서 木船을 타고 喬桐島, 黃海道 長淵을 거쳐 中國 山東半島의 威海衛에 上陸하였다. 이 때

66) 同上 2월 12일 字 論說.

67) 『續陰晴史』 下卷(國史編纂委員會, 1960) 隆熙 4년 2월 22일, 3월 5일 條.

한국을 떠나면서 지은 노래, 즉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序頭로 시작하는 去國歌는 당시의 그의 心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⁶⁸⁾

安昌浩의 行方을 알 수 없자 日帝는 곧 情報網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그리하여 靑島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내었다.⁶⁹⁾ 安昌浩는 여기서 新民會 幹部들과 大討論會를 벌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討論會는 圓滿히 進行되지 못하였다. 安昌浩를 비롯한 穩健派에서는 實力을 기르면서 將來의 機會를 기다리자는 意見을 내세웠고, 李東輝, 柳東悅, 李甲을 비롯한 急進派에서는 당장 滿州로 가서 光復軍을 조직하여 日本과 開戰하자는 意見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끝내 會議는 決裂되고 安昌浩는 미국으로 떠났다.⁷⁰⁾

그러면 大成學校는 어떻게 되었던가? 安昌浩가 亡命하자 學監 張膺震에 依해 운영 되었다. 그러나 校庭에서 刑事와 憲兵의 出入이 頻繁하고, 學生들의 動搖 또한甚하여 張膺震은 實力培養을 내세워 무마하는데 온갖 힘을 다 바쳐야만 했다.⁷¹⁾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한편으로 校舍의 增築을 推進하였다. 學生들을 좀 더 많이 收容하여 敎育을 하는 것이 焦眉의 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역시 문제는 財政이었다.

이 때 이 計劃을 알게된 皇城新聞社에서는 1910년 7월 19일 字에 「大成學校增築에 對하야 當地紳士에게 勸告를 與함」이란 제목의 論說을 써서 有志들에게 寄附金을 내줄 것을 呼訴하였다. 그 一部分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上略) 蓋其遠近人士의 信用으로 觀하면 實로 大擴張의 期望이 有하나 但其校舍制度가 本히 宏敞치 못하야 現在三百餘名學生의 容受함을 得하나 目今 秋朔

68) 주요한 編著, 前揭書, pp. 109~112.

69) 『皇城新聞』 1910년 6월 10일 字 雜報 「安昌鎬(浩의 잘못)氏等行動報告」.

70) 주요한 編著, 前揭書, pp. 114~127.

71) 金澄植, 回顧錄.

더라도 學生의 應募가 益進하는 境遇에 更히 容受할 處所가 無호즉 校舍增築이 斷不可已의 問題라云하더니 玆에 某處報道를 據호즉 該校舍를 增築하기로 目下 準備中이라하니 吾儕가 此에 對하야 極히 贊成함을 不已하거니와 因하야 當地紳士諸氏에게 懇切히 勸告의 意를 表호노라.……(中略) 今에 該校舍가 增築을 得호면 前途의 大擴張을 可期하려니와 如其不能호면 擴張進取는 決無可望이니 此果何等問題인가. 然호나 或者의 所傳을 聞호즉 該校 設立이 實로 他地方有志者의 力이오 當地財政家는 金鎭厚氏 一個人 以外에는 舉皆 袖手傍觀호而已라하니 其然가 豈其然乎리오. 若果然호면 平壤山川에 義俠風이 全滅호얏다 謂호지며 開明風氣에 勇進의 聲譽가 有호나 謂키 不可호며 子弟教育의 義務를 全然 拋棄호者라 謂호지니 엇지 可愧可歎의 甚호者 아니리오. 今日 大成學校增築問題에 對하야 當地紳士의 價値를 可히 決定호지라. 吾儕는 該校舍의 喚然 告成호는 日을 待하야 紳士諸氏의 義務心을 深切히 祝賀호지니 念之勉之이다.

그러니까 平壤 사람들은 義俠心을 發揮하여 寄附金을 내어 大成學校 增築을 期必코 이루어주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大韓帝國은 主權을 喪失하고 日帝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곧 日帝는 韓國人에 對한 教育方針을 同化主義로 定하고⁷²⁾ 私立學校, 그 중에서도 大成學校, 定州의 五山學校, 安州의 安興學校 등 民族精神을 昂揚하는데 注力을 하였던 學校에 對해 彈壓을 加하기 시작하였다.⁷³⁾ 여기에 겹쳐 1911년 日帝는 105人事件을 捏造하여 尹致昊, 安泰國, 車利錫, 崔叡恒, 金斗和, 玉成彬 등의 教師, 그리고 寄附金을 提供하였던 吳熙源 등 大成學校 關聯者를 檢舉하였다. 이들은 모두 新民會 會員이었다.⁷⁴⁾

大部分의 教師들이 學校에서 없어졌으니 學校는 죽발이 된 것이나 다를바 없었다. 學生들은 방황하게 되고, 특히 日帝當局으로부터 注目을 받고 있던 過激派학생들은 舉皆가 滿州로 亡命해 버리고 말았다. 自然히 殘留

72) 『漢城新聞』 1910년 9월 7일 字 雜報「朝鮮人教育方針」, 『漢城新聞』은 韓日合併 이후 『皇城新聞』의 後身으로 15일간 刊行되였던 신문이다.

73) 朴殷植, 『韓國痛史』(大同編譯局, 上海, 1922); 『朴殷植全書』上卷〈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5〉第53章「韓人之教育掃地」.

74) 『每日申報』 1912년 7월 10, 11, 12, 13일, 8월 25일 字.

學生들은 위축되고 意氣消沈하게 되었다.⁷⁵⁾

이런 속에서도 校長 張膺震은 學校의 命脈을 維持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하여 1911년과 1912년 4월에는 預備科와 初等科 1학년의 補缺生을, 1911년 9월에는 初等科 1학년 학생募集을 하였다.⁷⁶⁾ 그리고 1912년 3월 3일에 豫定대로 第1回 卒業生을 輩出시켰다. 그 數는 20名이었다. 1908년 9월에 開校한 以來 3年半 만에 첫번 卒業生을 배출시킨 것이었다. 그러니까 開校하면서 入學한 학생들을 預備科에 넣었다가 半年 뒤 初等科 1학년으로 進級시켜 滿3年間の 全課程을 履修시켰던 것이었다. 이 때 校長 張膺震으로부터 卒業證書를 받은 學生은 다음과 같았다.⁷⁷⁾

郭鳳祚 趙東元 宋元泓 趙明壇 金在潑 李濟鶴 金澄植 金性業 金光倍
尹永周 李炳浩 康敏郁 朴寅鐸 趙鍾完 張致鏞 金泰亨 金基俊 柳英烈
金善株 吳宗鉉

卒業한 學生들은 社會의 要求에 부응하여 太半이 普通學校의 敎員이 되었다.⁷⁸⁾

그 뒤 日帝의 彈壓은 날로 甚하여 學校를 더 以上 지탱해 나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특히 第1回 卒業式을 거행한 直後 校長 張膺震마저 105人 事件과 관련이 있다는 울가미를 씌워 拘束하였기 때문이었다.⁷⁹⁾ 이에 따라 學校의 운영은 힘들게 되고, 학생도 出席치 않음으로서 다음 해 1913년 閉鎖의 悲運을 맞이하게 되었다. 關係記錄이 없어 正確한 時日은 알 수 없으나 朝鮮總督府의 機關紙『每日申報』1913년 11월 2일 字「平南通信」에

75) 金澄植, 回顧錄.

76) 『每日申報』1911년 3월 16일 字, 8월 16일 字, 1912년 3월 19일 字 廣告.

77) 『每日申報』1912년 4월 2일 字「大成學校卒業式」, 그런데 金澄植의 回顧錄에는 19명으로 나오고 金基俊이 빠져 있다. 또 이름 중에 金在潑는 金在璇으로, 金光倍는 金光信으로, 朴寅鐸이 朴容鐸으로 나온다.

78) 金澄植, 回顧錄.

79) 『每日申報』1912년 7월 9일 字「重大事件公判」을 보면, 張膺震도 裁判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보다 훨씬 전에 拘束되었을 것이다.

依하면, 日本 明治天皇 生日 祝賀에 平壤 各級學校 生徒 一同이 日本旗를 들고 行進하는데 大成學校 生徒들은 參加치 않았다고 했으니,⁸⁰⁾ 이 時期 보다 앞서 閉鎖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萬若에 이와같은 推測이 옳다고 한다면, 1908년 9월에 創設된지 滿 5년만에 大成學校는 閉鎖된 셈이었다.

그러면 大成學校에서는 학생을 몇 번이나 모집하고 在學生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 前述한 바와 같이, 開校하기 直前인 1908년 9월 24, 25 兩日에 걸쳐 預備科와 初等科의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이 때 選拔한 학생은 質이 매우 낮아 그 大部分을 預備科에 入學시키고, 開校한지 20일 뒤 다시 初等科 1학년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1909년 1월 24일에 또 다시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 1일에 預備科와 初等科 1학년의 학생을 모집하였고,⁸¹⁾ 다시 1월 1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預備科와 初等科 1학년의 補缺生을 모집하였다.⁸²⁾ 1910년 4월 4일 또 다시 補缺生을,⁸³⁾ 그 해 9월 1일에 預備科와 初等科 1학년 학생을 모집하였다.⁸⁴⁾ 한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合併 뒤인 1911년 4월 10일 預備科와 初等科 1학년 補缺生, 9월 1일 初等科 1학년 학생, 1912년 4월 8일 豫備科와 初等科 1학년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보면, 大成學校는 開校以來 10회 학생을 모집한 셈이었다. 그 때 그 때 몇 명의 학생을 入學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在學生이 많을 때에는 7~800명,⁸⁵⁾ 적을 때는 300餘명이었던 것 같다.⁸⁶⁾ 물론 이 數는 預備科 학생을 포함시킨 것이고, 또 預備科 학생이 初等科 학생보다 數字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初等科 학생에 대해서는 少數 精銳로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80) 金澄植, 回顧錄에는, “이 一回의 卒業生을 내인지 一年後 周圍環境은 一變하여 學校는 不得已 閉鎖되게 되었다”고 있는 것도 參考할 수 있다.

81)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9일 字 廣告.

82) 同上, 12월 12일 字와 1909년 1월 20일 字 廣告.

83) 同上書, 1910년 3월 24일 字 廣告.

84) 『皇城新聞』 1910년 8월 19일 字 廣告.

85) 金澄植, 回顧錄.

86) 『皇城新聞』 1910년 7월 19일 字 論說「大成學校增築에 對하여 當地紳士에게 勸告를 與함」 참조.

V. 結 語

以上으로 大成學校의 設立과 敎育, 그리고 그 閉鎖에 대해 살펴 보았다. 大成學校는 1908년(隆熙 2) 9월에 開校하여 1913년에 閉鎖됨으로써 不過 5년밖에 存續하지 못하였던 短命의 學校였다. 그러나 日帝의 統監府에서 「私立學校令」이라는 것을 公布하여 韓國의 私立學校에 대한 酷毒한 彈壓을 시작한 直後에 開校하여 韓國社會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던 것이니, 大成學校란 이름의 많은 私立學校가 全國에 세워졌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⁸⁷⁾

여기에는 이 學校의 設立者 安昌浩의 가르침이 크게 作用하였다. 그는 敎育을 單純한 技術傳授의 手段으로 보지 않고, 眞正으로 人格을 陶冶하고 民族精神을 高揚하는 것에 注力하였던 것이었다. 그의 敎育理念은 실제로 學生들에게 影響을 끼쳤다. 이에 대해서는 이 學校를 다녔던 學生의 回顧錄 중에,

(上略)이 學校에 暫時라도 발을 디려 노앗든 千餘名 靑年은 只今 비록 海外, 海內에 散在하얏다 할지라도 安島山主義의 精神은 聯絡一貫되어 있다. 己未萬歲 後 平壤에 있는 卒業生들은 平壤에서 同窓會를 發起하얏든바, 全鮮 各地로부터 모혀든 者 數百名에 達하얏섯다. 그리하여 그들은 靑天白日의 넛날 校旗를 들고 大同江 上에서 넛날의 노래를 合唱하야 平壤의 사람들을 變動케 하얏섯다. …(下略)⁸⁸⁾

고 하여, 大成學校를 다녔던 것에 대해 대단한 自負心을 갖고 있었다.

어찌던 大成學校의 設立은 安昌浩가 大韓帝國을 守護해 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合邦이후 이 學校는 비록 閉鎖되었으나 그의 精神은 뒤에까지도 學生들의 가슴 속에 식지 않고 綿綿히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87) 이를테면, 慶尙道 固城郡, 京畿道 江華島에 大成學校가 세워졌다. 이에 대해서는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6일 字 廣告와 1910년 5월 12일 字 學界 참조.

88) 金澄植, 回顧錄.